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쿠웨이트

### State of Kuwait

2023년 3월 16일 | 조사역(G3) 동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8천 km <sup>2</sup> 	<b>인구</b> 482만 명 (2022 <sup>e</sup> ) 	<b>정치체제</b>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외교 
<b>GDP</b> 1,836억 달러 (2022 <sup>e</sup> ) 	<b>1인당GDP</b> 38,123달러 (2022 <sup>e</sup> ) 	<b>통화단위</b> Kuwaiti Dinar 	<b>환율(U\$기준)</b> 0.31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쿠웨이트인이 30%에 불과하고, 아시아인(40%)과 아랍인(27%) 등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함. 수니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이나 소수의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덜해 이슬람 종파 간 갈등이 적고,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회질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인구 470만 명,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8%에 불과한 1.8만 km<sup>2</sup>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원유 매장량(세계 7위)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다만,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님.

□ 19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점령당했으나,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참전으로 이라크의 점령에서 해방되었음. 2020년 9월 사바(Sabah) 국왕의 서거 후 가문 내 합의에 따라 선왕의 이복동생인 나와프(Nawaf) 왕세제가 신임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9. 6. 11 수교 (북한과는 2001. 4. 4 수교)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82년), 문화협정('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00년), 경제기술협력협정('06년), 투자증진보호협정('07년), 형사사법공조조약('08년), 범죄인인도조약('13년), 외교관관용특별사증면제협정('15년), 수형자이송조약('15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 출	660,349	348,911	396,999	선박해양구조물, 전력용기기, 자동차
수 입	5,827,875	8,253,946	12,379,661	원유, 석유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 현황(2022.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32건, 32,447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경제성장률	2.4	-0.6	-8.9	1.3	8.7
소비자물가상승률	0.6	1.1	2.1	3.4	4.3
재정수지/GDP	7.1	2.9	-12.9	-0.4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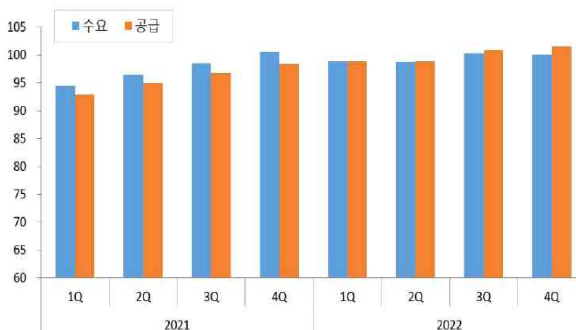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상승과 산유량 증대로 2022년 8.7%의 경제성장 달성 추정

- 쿠웨이트 경제는 원유의 생산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상반기의 국제유가 상승과 산유량 증대 및 코로나19 관련 이동 제한 완화에 힘입어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이 동반 성장하여 2021년(1.3%) 대비 대폭 상승한 8.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비석유 부문의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환경과 국내 경제활동 모두 점차 회복됨에 따라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3.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IMF).
- 배럴당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2022년 6월 초 120달러대까지 상승한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12월 초 76달러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23년 들어 중국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점차 상승하여 2023년 2월 말 83달러대를 기록함.
-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전망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7%로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FitchSolutions).
- 2023년 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1월 EIA는 2023년 평균 유가(WTI 기준)를 전년평균 대비 배럴당 17.73달러 하락한 77.18달러로 전망하였음. 다만 OPEC+의 감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의 요소로 인해 큰 폭의 하락은 제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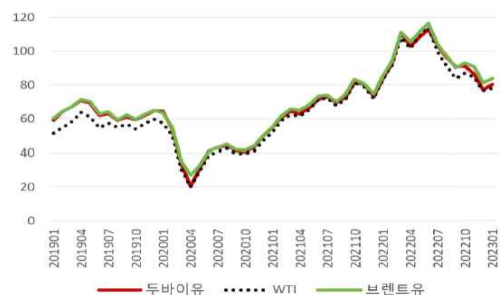
[그림 1] 분기별 세계 석유 수급 추이

(단위: 백만 b/d)



[그림 2] 국제유가 추이<sup>1)</sup>

(단위: \$/bbl)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2년 4분기 석유가스 시장 분기보고서 (원출처: EIA, KoreaPDS)

1) 유가는 [Brent] 선물 익월물(ICE) / [WTI] 선물 익월물(NYMEX) / [두바이] 현물가격

## 국내경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과 여행 관련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2022년 4.3% 기록 추정

- 2021년부터 시작된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 완화로 인한 소비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곡물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식료품 수입가격과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이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2.1%, 2021년 3.4%에서 2022년 4.3%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쿠웨이트 중앙은행은 할인율(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2022년 하반기 네 차례에 걸쳐 2%에서 3.5%로 인상한 데 이어, 2023년 1월 30일 4%로 추가 인상하며 가파른 물가상승을 저지코자 노력하고 있음.
- 쿠웨이트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국내수요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외환거래가 많아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 자본이동에 취약함.
- FitchSolutions는 쿠웨이트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나, 중장기 국가 개발계획인 Kuwait Vision 2035의 시행으로 국내수요가 회복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향후 10년 간 연평균 2%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흑자 전환과 연기되었던 정부 주도 프로젝트 입찰의 재개

- GDP의 약 50%, 정부 재정수입의 약 9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쿠웨이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원유 국제수요 감소로 2020년과 2021년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GDP 대비 14.1%의 흑자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 재정수지 추이(십억 쿠웨이트 디나르, IMF) : ('12)15.8 → ('13)16.9 → ('14)10.4 → ('15)1.9 → ('16)0.1 → ('17)2.3 → ('18)3.8 → ('19)2.1 → ('20)-2.7 → ('21)-0.6
- 다만, 2022년 고유가 지속과 석유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팬데믹 및 저유가 영향으로 연기 및 중단되었던 정부 주도 프로젝트들이 재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가 재정수지 흑자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 Moody's는 쿠웨이트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AAA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FitchRatings에 따르면 2022/23회계년도 기준 쿠웨이트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쿠웨이트 투자청(KIA)이 관리하는 미래세대펀드(Future Generation Fund)의 자산이 주를 이루는 정부 금융자산은 2021년 말 기준 GDP의 약 3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쿠웨이트 정부의 재정 운용에 충분한 완충장치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 국내경제

### 석유 의존형 경제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Kuwait Vision 2035' 추진

- 2017년 1월 쿠웨이트 정부가 발표한 "Kuwait Vision 2035"는 중동의 비즈니스, 문화, 교육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으로, 원유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산업 다각화, 정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함.
- 동 계획의 핵심은 인프라 투자로,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5년 간의 저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병원, 발전소,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 및 진행하며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음. 최근에는 국제공항 확장, 철도 네트워크 구축, 물류 및 산업 허브 건설 계획 등을 발표함.

[표 2] Kuwait Vision 2035의 세부 내용

5대 전략	7개 축(세부 이행 방안)	
① 시민참여 확대 및 준법정신 확립 (Citizen Participation and Respect of Law)	① 공공 분야 (Public Administration)	행정, 정책 실현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② 경제 분야 (Economic)	원유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탈피 및 산업 다각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
②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Effective Government)	③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현대화 및 개발, Jahra, Bubiyan 섬 등 북쪽 지역 개발을 통해 물류 중심으로 도약
③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Prosperous Economy)	④ 생활환경 (Living Environment)	주택 보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④ 국가 통합 공고화 (Nurturing Nation)	⑤ 보건의료 (Health Care)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의료 서비스 개선
	⑥ 인적자원 개발 (Human Capital)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강화
⑤ 국제사회 역할 확대 (Globally Relevant Player)	⑦ 국가적 위상 (Global Position)	국제 사회에서 쿠웨이트의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위상 강화

자료: KOTRA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경 상 수 지	24,049	30,255	22,030	34,943	51,651
경상수지/GDP	17.4	22.2	20.8	25.7	28.1
상 품 수 지	45,711	35,361	15,412	40,550	63,144
상 품 수 출	77,080	64,797	40,248	68,416	98,135
상 품 수 입	31,370	29,436	24,836	27,866	34,991
외 환 보 유 액	34,788	37,434	45,495	39,690	42,882
총 외 채	62,537	57,328	67,388	62,033	55,380
총외채잔액/GDP	45.3	42.1	63.6	45.7	30.2
D.S.R.	3.7	4.1	4.6	3.6	3.0

자료: IMF, EIU

###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했던 상품 수출입은 2022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초과하여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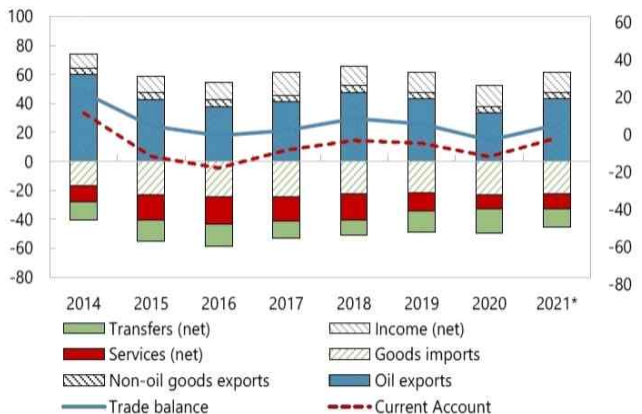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유 국제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소비 위축으로 급감했던 상품 수출입이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원유 생산량 및 수출액 증대, 국내수요 회복 및 국가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초과하는 규모로 회복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약 47.8%나 증가하여 GDP의 28.1%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전년 대비 43.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수출은 원유를 비롯한 석유 관련 제품이 90%를 차지함에 따라 국제유가 동향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음. 한편, 민간소비 증가 외에 그간 연기되거나 중단되었던 정부 주도 프로젝트들이 점차 재개되며 자본재 수입도 증가한 결과 상품수입은 전년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2022년 한 해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 원유 수출가격이 수입액 증가를 충분히 상쇄하여 상품수지 흑자는 GDP 대비 34.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서비스 수출도 관광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의 Kuwait Vision 2035 국가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외국 기업과의 용역계약 등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서비스 수입이 전년 대비 25.6% 증가한 결과 서비스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국제유가가 2023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쿠웨이트의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상수지 흑자 폭이 2022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외채상환능력

2022년 말 총외채잔액은 GDP의 30.2%로 추정되어 외채상환위험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장기적인 외채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요소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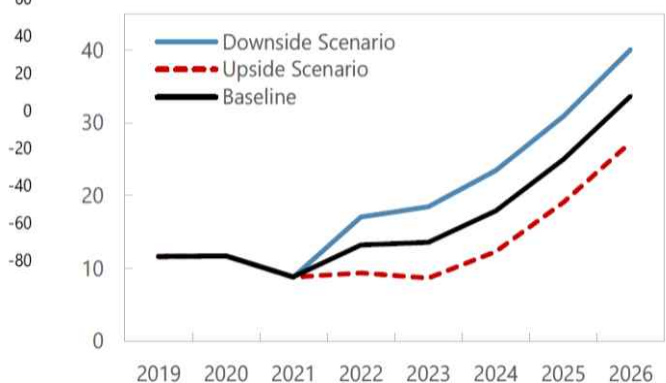
- 쿠웨이트 정부는 석유 수출 수입(收入)으로 구성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음. 2022년 10월 Global SWF 발표에 따르면 동 펀드의 자산규모는 2022년 쿠웨이트 GDP 추정치의 4배 이상인 7,690억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이는 쿠웨이트 경제에 가해질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금융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음.
- \* 국부펀드 규모: 1위 중국(1.3조 달러), 2위 노르웨이(1.18조 달러), 3위 아부다비(8.3천억 달러)
- 그러나 IMF가 쿠웨이트 정부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 충분히 저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쿠웨이트의 정부 재정이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건전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IMF는 쿠웨이트 정부가 외채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미래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석유 시장의 장기적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재정수입 대비 공적채무 이자지급액 비중이 0%대(OECD 기준)이고, 상품수출 증가에 따른 총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59.2% → 40.5%) 및 D.S.R(3.6% → 3.0%)이 모두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쿠웨이트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그림 3] 쿠웨이트 경상수지의 산업별 기여도 (Percent of GDP)



자료: IMF

[그림 4] 쿠웨이트의 정부부채 시나리오 (Percent of GDP)



자료: IMF

## 구조적취약성

###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 여력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민간 부문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및 추진 중

- Fitch에 의하면 쿠웨이트 정부지출의 70% 이상이 공무원 급여와 보조금인 고정적 경상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쿠웨이트 국민의 약 80%가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 이에 IMF는 쿠웨이트의 민간 부문이 청년들에게 충분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석유 부문의 강력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쿠웨이트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인 Kuwait Vision 2035는 산업 다각화, 인적자본 육성 제고, 임금 인상 및 공공-민간 부문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국민 고용 창출을 증대한다는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 부문은 쿠웨이트 GDP의 약 절반 및 총수출과 정부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쿠웨이트 경제는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함.
- OPEC의 규제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축 및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은 경제성장을 저하, 외환보유액 감소,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악화 등 쿠웨이트 경제 전반에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함. 특히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쿠웨이트 경제의 성장 전망에 즉각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갑작스러운 공공지출 삭감을 촉발할 위험이 있음.

### 공산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소비시장

- 쿠웨이트는 역내 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이 미흡함에 따라 일반 생필품에서 자본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상품수요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국내 생산품 판매 증대를 위해 입찰법 상의 국내산 의무조달 제도(국산품 특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내산이 수입 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으나 가격이 20% 이내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허용함. 따라서 외국산은 현지 제품에 비해 가격이 2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름.

###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에 따른 만성적인 이전소득수지 적자 발생

- 쿠웨이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쿠웨이트 내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이 약 84%(2.4백만 명)를 차지하여, 이들의 자국 앞 송금으로 인한 이전소득수지 적자의 규모가 큰 편임. 2017~21년 중 평균 이전소득 지급액은 GDP의 13%에 달하며, 같은 기간 이전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연평균 169억 달러임.
- 쿠웨이트 통계청과 노동총국에 따르면, 2022년 첫 3개월 간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만 2,000명으로, 이 중 88.9%가 가사도우미로 입국하였음.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지는 인도,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냉, 수단 순으로 집계됨.



## 성장잠재력

###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20년 말 기준 1,015억 배럴의 원유(세계 7위) 및 1.7조 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18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이는 2020년도 생산량을 유지할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를 향후 각각 103년 및 113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아랍 국가들 중 우수한 수준의 인적자원 보유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조사대상 191개국 중 50위로 '아주 높은 인간개발 수준'(Very High Human Development)을 기록한 국가로 분류되어, 아랍 국가들 중 우수한 수준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여타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도 아랍에미리트 26위, 카타르 42위,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공동 35위, 오만 54위로 양호한 순위를 기록하였음.

### 3대 주요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요충지

- 쿠웨이트는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총 인구 약 1.5억 명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과 국경을 마주한 요충지에 위치하여 유통업이 발달했고, 주변국의 유통망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 현재 쿠웨이트 정부는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두바이에 그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누려왔던 걸프 지역의 무역·금융 중심지로의 위치를 되찾는다는 목표 하에 북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는 2019년 준공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프로젝트가 꼽히며,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연결하기 위한 총연장 574km의 철도 건설 사업 및 부비안 항만 건설 사업 등도 추진 중임.

## 정책성과

### 인프라 건설 부문,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안정적 성장

- Fitch Solution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인프라 건설 부문은 2024~31년 중 연평균 3.2%의 실질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전망은 Kuwait Vision 2035의 목표에 따라 경제 다각화 및 중동의 물류 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쿠웨이트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임.
- 쿠웨이트는 도로 기반이 열악하고 국가 철도 시설이 전무하며, 공항 및 항구의 수 역시 타 GCC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으로 내부 교통 네트워크 기반이 상당히 취약함.
-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철도, 항만 등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Fitch Solution의 Key Projects Database 지표에 따르면 전체 건설 프로젝트 가치의 약 60%가 교통 인프라 확장에 집중되어 있음.
- 쿠웨이트는 105억 달러 규모의 Mubarak al Kabeer 항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장 중임. 동 프로젝트는 현재 북부의 부비얀 섬을 거점으로 2021년 2월부터 건설 중이며, 2030년 완공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의 완공 시 컨테이너 360만 개를 수용할 수 있어 국내 물류 처리능력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또한 초대형 유조선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준설 작업과 24개의 선석 건설을 건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라크의 신항만 개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통화 바스켓 형태의 고정환율제 유지

- 쿠웨이트는 2007년 5월 미 달러 등 주요 통화 바스켓 페그(basket peg) 방식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바스켓 구성 통화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유로화 등 무역·금융상의 주요 거래상대국 통화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 석유 부문이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수입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정치안정

### 의회와 내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촉발하여 재정 문제 해결 및 구조개혁 강화를 방해

-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의회가 존재함.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교적 선진화된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 부가가치세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 주요 경제·세제 개혁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음.
- 재정운영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국채법을 포함한 주요 개혁 법안들이 명확한 기한 없이 의회 승인을 기다리는 중임.
- 현재 의회에 제출된 공공부채법(Public Debt Law) 초안은 공공부채의 한도를 GDP의 60%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규모 확장 및 추가 공공차입의 여지를 허용함. IMF는 국채법이 적절한 채무관리를 위해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야 하며, 운영 수준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채무 만기, 규모 또는 자금 조달 용도와 같은 입법 제한을 피해야 함을 강조함.
- \* 공공부채법 : 정부 차입 한도 및 만기 등을 명시한 법으로, 쿠웨이트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정부채 발행이 가능함. 2023년 3월 9일 현재 쿠웨이트 정부는 차입한도 확대(GDP의 60%), 차입만기 제한 삭제(현재 최장 30년)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임.

### 최근 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내각의 보이콧 및 총사퇴 발생

- 2020년 12월 총선 결과 구성된 의회가 내각 구성 문제를 놓고 내각과 갈등을 거듭하자, 2022년 7월 국정 운영의 실권자인 Mishal 왕세제가 의회를 해산한 뒤 9월 29일 조기 총선 실시로 새 의회가 구성 되었음. 의회는 2023년 1월 10일의 정기 회의에서 140억 쿠웨이트디나르(약 460억 달러) 규모의 가계 부채 탕감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회와의 의견 대립으로 내각이 정기 회의를 보이콧하는 사태가 발생함.
- 정기 회의에 출석한 부총리 겸 석유장관, 의회 담당장관 겸 주택-도시개발장관은 가계부채 탕감 관련 법안을 포함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법안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임을 강조하며 소관 재정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거부하자 회의장을 퇴장하였음. 이튿날인 1월 11일 내각은 의회 정기 회의에 불참하였음.
- 1월 26일 내각 일괄 사임안을 제출하였고, Nawaf 국왕이 내각 총사퇴를 승인하는 국왕칙령(Amiri Order)을 발표함에 따라 Ahmad 총리가 이끄는 제42차 내각은 출범 3개월여 만에 총사퇴하고 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정치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사회안정

### 풍부한 복지혜택 제공 등으로 사회안정 유지

- 쿠웨이트는 역내 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석유 판매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결혼 시 무상 주택 공급,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2 세계평화지수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MENA 지역 최상위권(2위) 수준의 평화지수를 기록함(163개국 중 39위).
- 다만, 2020~2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재정여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조금 개혁,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쿠웨이트인은 주로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 부문에서의 취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역시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

### 202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GCC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2022년 쿠웨이트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는 42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77위에 올라 2021년(73위) 대비 하락하여, GCC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함. TI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UAE(67%, 27위), 카타르(58%, 40위), 사우디아라비아(51%, 54위), 요르단(47%, 61위), 동 순위인 오만, 바레인(44%, 69위)에 이어 중동 지역 국가 중 7위를 기록함.

### 세계자유지수는 37점으로 GCC 국가들 중 유일하게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분류

- 미국 Freedom House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2021년 쿠웨이트의 세계자유지수(Global Freedom Scores)는 37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되어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가 있는 국가로 분류됨. 세부적으로는 '정치적 권리' 항목에서 14점(40점 만점), '시민의 자유도' 항목에서 23점(60점 만점)을 기록하였음.
- 쿠웨이트만이 유일하게 GCC 국가 중 부분적으로나마 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카타르(25점), 오만(23점), 아랍에미리트(17점), 바레인(12점), 사우디아라비아(7점)는 모두 '자유가 없는(Not Free)' 국가로 분류되어 GCC 국가들의 사회적 자유도는 전 세계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 국제관계

###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주변 수니파 국가들과 경제·외교 등에서 협력 중이며, 비동맹 독립외교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미국 중심의 실리외교 추구

- 쿠웨이트는 1981년 5월 걸프 지역의 다른 수니파 왕정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과 걸프협력위원회(GCC)를 창설하여 자주적인 지역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회원국 간 경제 교류 및 외교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
- 2021년 1월 오만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4개국과 카타르 간의 외교관계 복원을 중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외교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음.
- GCC 회원국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해 왔으나, 카타르의 친(親)이란 정책과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인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s)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아랍 4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집트)이 2017년 6월 카타르와 단교한바 있음.
- 한편, 1990년 걸프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안보 분야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1991년 양국 간 안보 동맹 체결 후 정치·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7년에는 관세·원유·교육·과학·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새롭게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 중임.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전투비행중대 감축,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철수 등 중동에 대한 영향력 축소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나, 쿠웨이트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미국 중심의 친서방 실리외교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개발 협력 강화 움직임

- 쿠웨이트는 1971년에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 중 최초로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2018년 7월 국왕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개발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2021년 기준 쿠웨이트의 최대 수출상대국(31%)이자 수입상대국(19%)으로, 양국은 ①방위산업 협약, ②화웨이-쿠웨이트 정보통신부(CITRA) 스마트 시티 협력 MOU, ③실크 시티 프로젝트 협력 MOU 등 'Kuwait Vision 2035' 플랜과 연계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1년 쿠웨이트의 상위 5대 교역 대상국〉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출국	금액	순위	수입국	금액
1	중국	177(31%)	1	중국	44(19%)
2	인도	95(16%)	2	미국	31(13%)
3	한국	83(14%)	3	사우디	16(7%)
4	일본	66(11%)	4	일본	15(6%)
5	대만	45(8%)	5	인도	12(5%)
:					
	17	한국		3(1%)	

자료: KOTRA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2년 9월 말 기준 쿠웨이트 앞 OECD 회원국 ECA의 지원 잔액 6,137백만 달러(단기 302만 달러, 중장기 6,135만 달러) 중 연체금액은 없으며, 현재까지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쿠웨이트의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23.01)	2등급 (2022.01)
Moody's	A1 (2020.09)	Aa2 (2020.05)
Fitch	AA- (2022.01)	AA (2021.02)

### OECD는 쿠웨이트에 2등급 부여 유지,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21~22년 중 등급 조정

- OECD는 2001년 이후 쿠웨이트의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해 오고 있음.
- 반면, Fitch는 정부와 의회 간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산업 다각화, 보조금 정책 및 공공 부문의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2022년 1월 쿠웨이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등급 하향 조정함.

- 2022년 쿠웨이트 경제는 그간 국제유가 상승과 산유량 증대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및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8.7%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8.1%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 국제유가가 2023년 들어 하락세로 접어듦에 따라 쿠웨이트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생산 정상화 및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 고조, 러시아의 원유 감산 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 중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쿠웨이트의 2023년 경제성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와 의회 간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교착 상태는 경제 다각화, 보조금 개혁을 포함한 주요 경제 및 정치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음. 이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IMF도 동 문제를 이를 쿠웨이트 경제의 주요 걸림돌로 꼽고 있음.